

브렉시트 앞둔 영국의 생산성 정체 대응방안과 시사점

이철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Tel: 044-414-1071)

임유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연구원 (yjlim@kiep.go.kr, Tel: 044-414-1064)

차 례

1. 브렉시트 추진 이후 영국의 경제 현황과 생산성 둔화 추이
2. 영국의 산업전략 주요 내용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은 최근 경제성장을 둔화와 생산성 정체 추이로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바, 현재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영국경제는 2014년 3.1%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3%, 2016년 1.9%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17년에도 1.8%를 기록하여 둔화세가 지속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는 영국의 생산성은 2016년 기준 G7 국가 중 5위에 머물러 있으며, 영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평균 대비 17.8% 낮은 수준임.
- ▶ 이에 영국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산업전략 백서(Industrial Strategy White Paper)를 발표하여 '5대 생산성 기초'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의 경제정책을 제시, 생산성 증진을 도모함.
 - 산업전략에 제시된 다섯 가지 정책은 △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 과학·기술교육 강화 △ 사회기반시설 확충 △ 기업환경 개선 △ 지역균형발전 등임.
 - 이러한 5대 정책 추진을 통해 영국은 ①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② 청정성장 ③ 미래형 이동수단 ④ 고령화 사회 등 영국이 직면한 4가지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 이러한 영국정부의 산업전략은 대체로 시의적절하고 영국경제의 특징과 강점을 잘 활용한 미래 지향적 정책대안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부호가 있으며, 특정 부문은 한·영 경제협력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산업전략은 생산성 둔화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영국의 미래에 대한 큰 틀이 결정되는 적절한 시기에 산업 전반에 걸쳐 마련된 매우 이례적인 종합 전략이며, 특히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도전과제를 선정한 전략은 영국경제의 특징을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국경제 취약부문 개선책 부족 및 구체성 결여, 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속 전망, 투자부진 우려 등으로 동 전략의 영국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상존함.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통상부문을 비롯한 광범위한 부문에서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한바, 향후 FTA를 포함한 한·영 경제협력 방안 모색에서 이러한 영국의 생산성 정체에 대한 고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브렉시트 추진 이후 영국의 경제 현황과 생산성 둔화 추이

■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정체 추이로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바, 현재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 중인 영국정부가 자국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발언이 이루어지고 이를 공약으로 캐머런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한 2013~15년 영국경제는 EU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추진됨.
- o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낮아진 생산성은 영국경제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으며,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하지만 2015~17년 3년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둔화되었으며, 생산성도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영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 o 2017년 6월 시작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은 12월 타결 및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단계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2019년 3월까지 협상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최소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을 둘 것으로 전망됨.¹⁾

가. 경제 현황

■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1.8%²⁾로 잠정 집계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고).

- 영국경제는 2014년 3.1%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3%, 2016년 1.9%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17년에도 이러한 둔화세가 지속되는 양상임.
- o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영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2017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2017년 기준 G7 국가 중 이탈리아(1.5%)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영국 예산처(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경제 및 재정 전망³⁾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속적인 생산성 둔화로 2022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3월 전망대비 하향 조정함.

- 특히 OBR은 11월 경제전망치(3월 전망대비)에서 2017년은 1.5%(-0.5%p), 2018년 1.4%(-0.5%p), 2019년 1.3%(-0.4%p), 2020년 1.3%(-0.6%p)로 전망함.

1)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동희(2018. 1. 17, KIEP 오늘의 세계경제)의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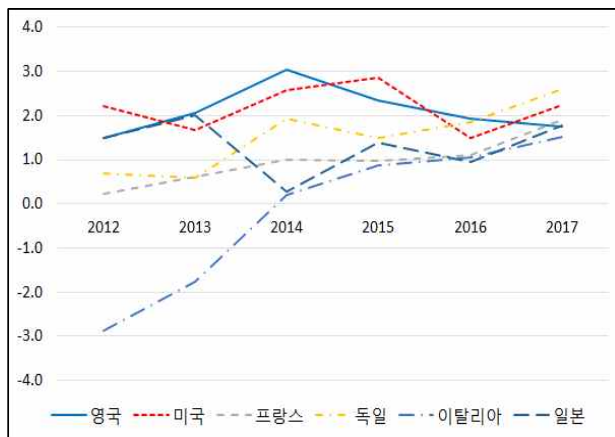
2)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 <http://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8. 2. 19).

3)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17), "Economic and fiscal outlook.." (November)

- 영국의 실업률은 2017년 4.4%⁴⁾로 완전 고용 경제로 평가되나,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과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실질임금상승의 둔화는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지적됨.
- OBR은 생산성 전망을 2021년까지 연간 평균 0.6%p 정도로 지난 3월대비 하향 조정하면서 생산성의 정체에 대해 지적함.

그림 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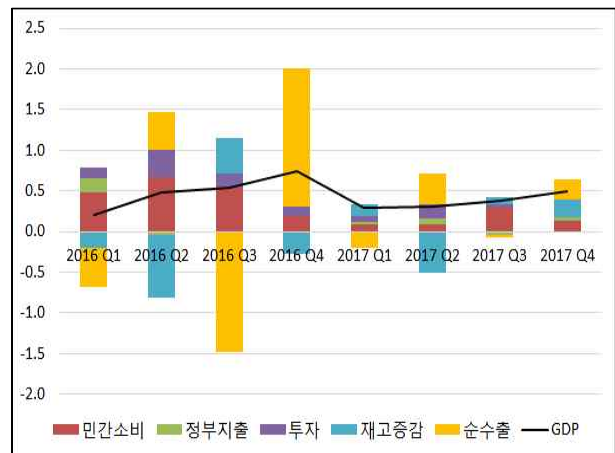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s Comparative World Overview(검색일: 2018. 1. 26).

그림 2. 영국의 GDP 구성요소별 성장률

(단위: %)



주: 2017년 4분기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재고증감, 순수출에 대한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Oxford Economics(검색일: 2018. 1. 26).

■ 영국경제는 순수출 성장세에도 민간소비와 투자가 전년에 비해 위축되면서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성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브렉시트를 앞둔 향후 영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민간소비 주도의 경제성장세를 보였던 2016년과 달리 2017년 민간소비는 위축되었으며, 이는 파운드화 약세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와 실질임금 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함(그림 3, 그림 4 참고).
- 이러한 전반적인 내수 부진은 유통, 호텔·식당업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세 둔화로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의 정체가 두드러짐.
- 낮은 생산성이 경제 및 공공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영국정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영국예산처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생산성이 매년 0.8% 성장에 그칠 경우 GDP 성장의 둔화, 재정적자의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분석됨.⁵⁾

4) Global Insight's Comparative World Overview(검색일: 2018. 2. 19).

5)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16), "Economic and Fiscal outlook," pp. 217-220. (November)

그림 3. 파운드화 추이

(단위: 파운드)



자료: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17. 11. 17), "Prospects for United Kingdom in 2018."

그림 4.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17. 11. 17), "Prospects for United Kingdom i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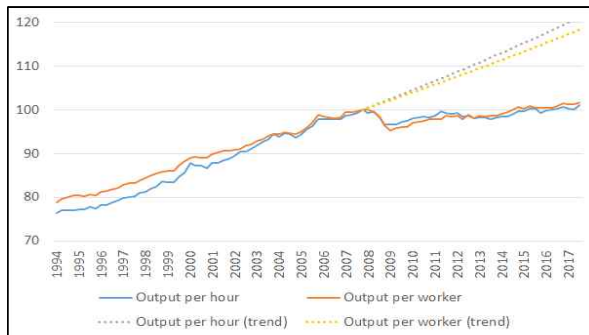
나. 생산성 둔화 추이

■ 영국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G7 국가 중 영국의 생산성은 2016년 기준 5위에 머물러 있음(그림 5, 그림 6 참고).

- 영국의 노동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간 2%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위기 이후 정체되어 있는 양상임.
- 2017년 3분기 기준 노동생산성은 전기대비 0.9% 성장하여 2011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전의 최고점인 2007년 4분기 대비 1% 높은 수준에 그침(그림 5 참고).⁶⁾
- G7 국가 중 영국의 생산성은 2016년 기준 5위이며, 영국 생산성은 영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평균 대비 17.8% 낮은 양상임(그림 6 참고).

그림 5. 영국의 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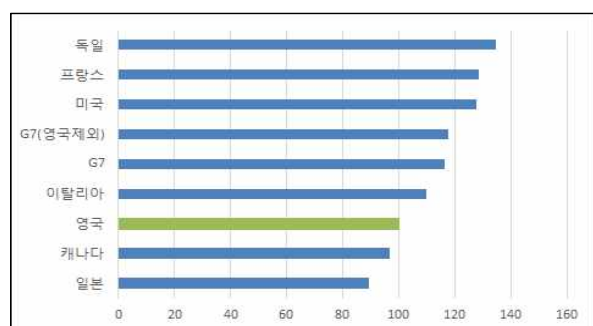
(2007=100)



자료: 영국통계청, "Labour productivity: July to September 2017,"(검색일: 2018. 2. 22).

그림 6. G7 국가의 생산성 비교(2016년 기준)

(영국=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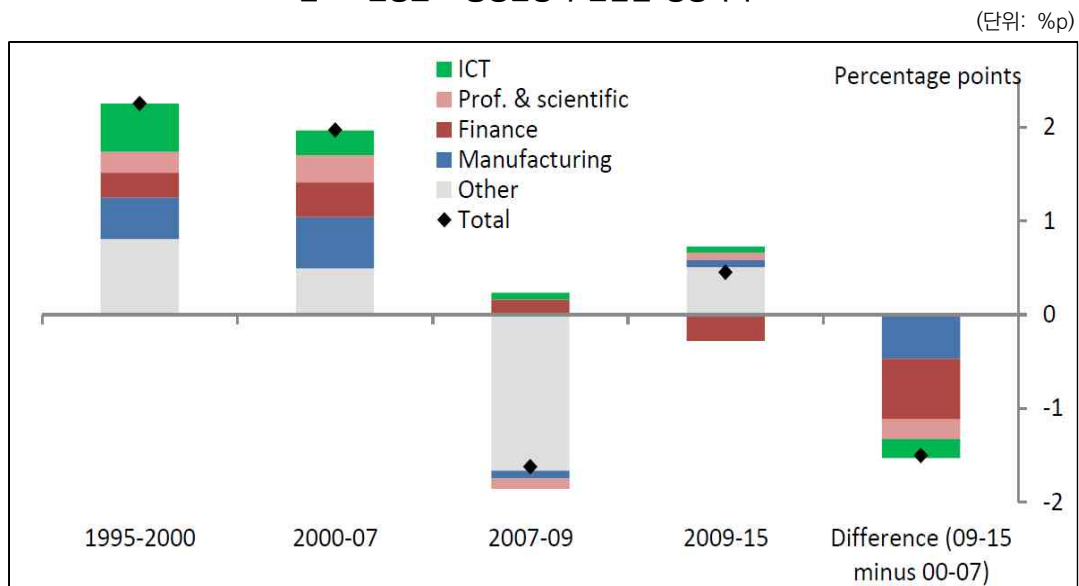
주: 생산성은 노동 1시간당 GDP를 의미함.

자료: 영국통계청,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roductivity,"(검색일: 2018. 2. 22).

6) 2007년 4분기를 100으로 지수화했을 때의 변화율임.

- 위기 전(2000~07년)과 위기 이후(2009~15년) 비교 시 생산성 정체 현상은 △ 금융 △ 제조업 △ ICT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나타남(그림 7 참고).
- o Silvana Tenreyro *et al.*(2018)에 따르면, 생산성 정체 현상은 제조업의 경우 자본의 심화(Capital Deepening)⁷⁾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세가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며, 특히 금융분야에서의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o 영국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부가가치에서 △ 법률·회계 서비스 △ 경영컨설팅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금융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림 7. 연평균 노동생산성의 산업별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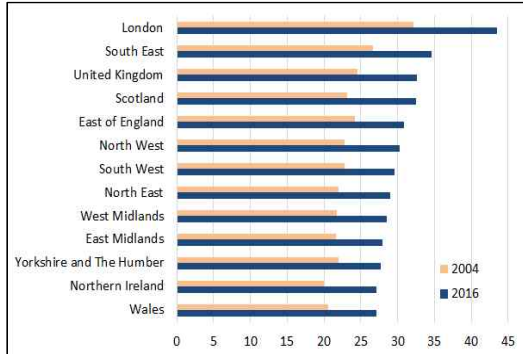
자료: Silvana Tenreyro *et al.*(2018), "The fall in productivity growth: causes and implications," p. 11.

- 2015년 기준 영국의 지역별 노동생산성은 2004년 대비 런던을 중심으로 이외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임(그림 8, 그림 9 참고).
- o 2004년 런던과 북아일랜드 간 시간당 총부가가치 격차는 12.2파운드였으나, 2016년의 경우 16.3파운드로 심화됨.
- o 주요 산업별로는 특히 영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남.

7) 자본의 심화(Capital Deepening)는 각 산업이 노동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임으로써 생산의 증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8. 영국의 지역별 시간당 총부가가치
(2004년, 2016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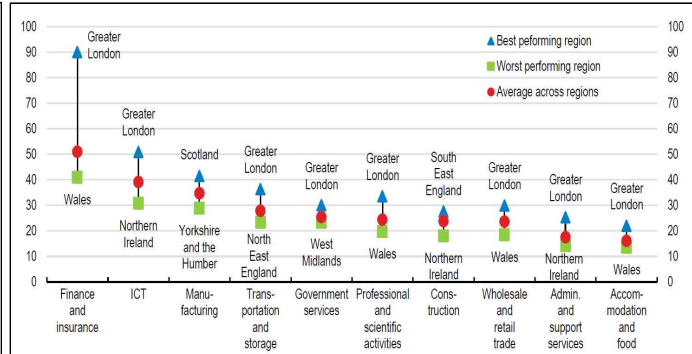
(단위: 파운드)



자료: 영국통계청, "GVA per hour worked by subregion,"
(검색일: 2018. 2. 22).

그림 9. 산업 분류에 따른 지역별 노동생산성 격차

(단위: 천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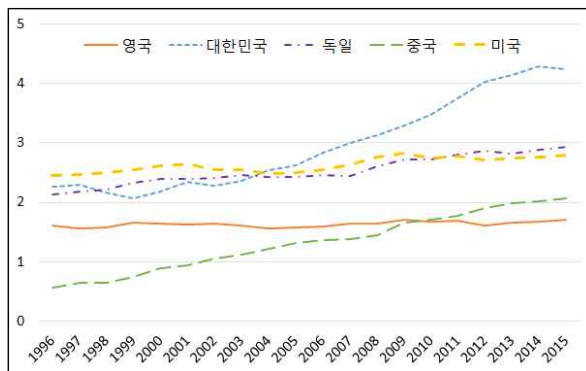


주: 해당 자료는 2015년 기준이며, 노동자당 부가가치로 산출한 노동 생산성임.
자료: Gal, P. and J. Egeland(2018),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in productivity in the United Kingdom", p. 12.

- 영국의 생산성 둔화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주로 R&D 투자 부진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됨.
- o 2015년 기준 영국의 R&D 지출은 GDP의 1.7% 정도로 OECD 평균인 2.38%보다 낮은 수준임(그림 10, 그림 11 참고).⁸⁾
- o 영국은 R&D 집약형인 제조업보다 대체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o R&D에 대한 기업 투자는 일부 대기업 위주⁹⁾이며, 의약품(19%), 자동차(15%), 항공부품(9%) 등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있음.¹⁰⁾

그림 10. 영국과 주요국의 R&D 지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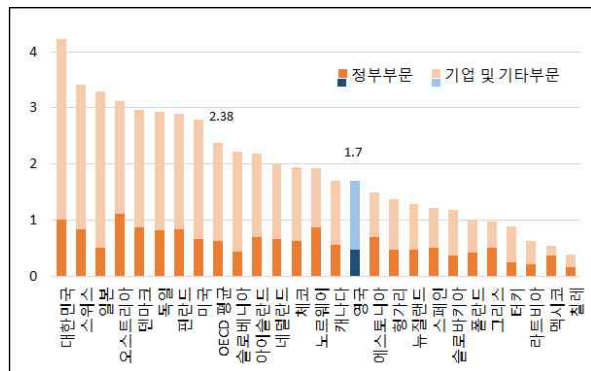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tat(검색일: 2018. 2. 21).

그림 11. 정부, 기업 및 기타부문의 R&D 지출
(2015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tat(검색일: 2018. 2. 21).

8) 미국은 2.8%, 독일은 2.9%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양상임.

9) 250인 이상 기업에서의 R&D 지출이 전체 기업 R&D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함(참고: Eurostat, Business expenditure on R&D(BERD) by size class and source of funds, <http://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8.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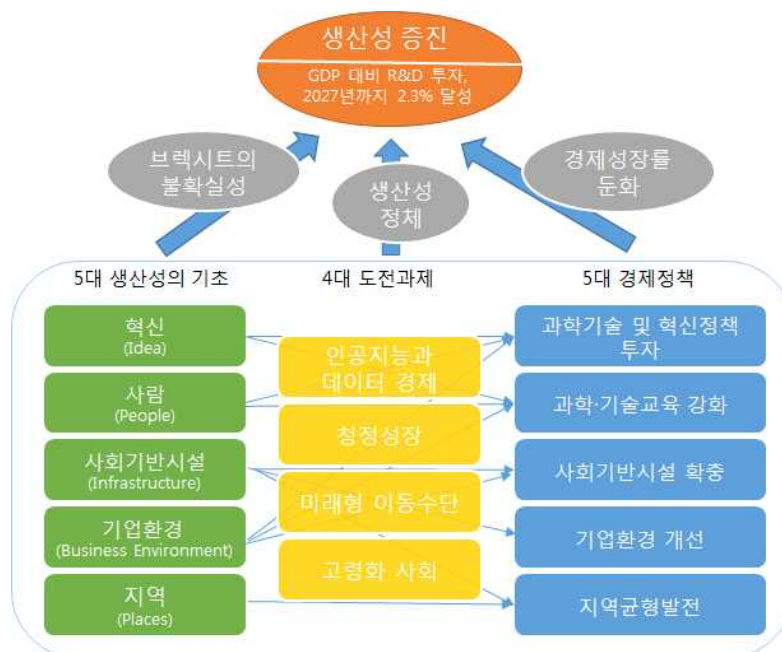
1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7. 11. 21), "Statistical bulletin: Business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UK: 2016", pp. 5-7,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researchanddevelopmentexpenditure/datasets/ukbusinessenterpriseresearchanddevelopment>(검색일: 2018. 2. 19).

2. 영국의 산업전략 주요 내용

■ 영국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산업전략 백서(Industrial Strategy White Paper)를 발표함.

- 영국정부는 2017년 1월 발간된 산업전략 녹색(Green Paper)인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를 바탕으로 2천 여 의견을 수렴하여 본 백서를 발간함.
- 본 전략을 통해 영국정부는 정체된 생산성 증진과 자동차, 건설업 및 생명과학 등 영국의 우수한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영국정부는 본 전략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산업전략위원회(Industrial Strategy Council)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여 본 전략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의 산업전략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제시된 반면, 2017년 발표된 본 전략은 영국정부의 생산성 둔화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 전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임.

그림 12. 영국 산업전략의 목표와 주요 정책 및 과제



자료: 저자 작성.

- 영국정부는 생산성 증진의 토대가 되는 5가지를 선정하여 영국 전역의 소득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산업에 직면한 4대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5대 생산성의 기초(5 Foundations of Productivity)는 혁신(Idea), 사람(People),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기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지역(Places) 등임.
 - 미래에 직면한 4대 도전과제(Grand Challenges)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경제(AI & Data Economy), 청정성장(Clean Growth), 미래 이동수단(Future of Mobility),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등임.

- 영국은 본 산업전략에서 '5대 생산성 기초'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의 경제정책을 제시하여 생산성 증진을 도모함.
- o 산업전략에 제시된 다섯 가지 정책은 △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 과학·기술교육 강화 △ 사회기반시설 확충 △ 기업환경 개선 △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임.

■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본 전략에서 영국의 저조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지적된바, 영국정부는 R&D 관련 세제혜택 제공 등으로 공공과 민간분야의 R&D 투자를 촉진 및 확대하여 영국을 글로벌 혁신국가로 변모시키고자 함.

- 2027년까지 R&D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GDP의 2.4%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3%를 목표로 설정함.
- o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D에 대한 공공투자를 전례 없이 대폭 확대하였으며, 향후 영국정부는 산업계와 공동 작업하여 기업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임.
- 이러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6대 분야¹¹⁾의 영국기업과 연구자 지원 기금인 산업전략도전기금(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에 7억 2,5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함.
- 영국기업뿐 아니라 우수 해외기업의 영국 내 R&D 투자 유치, 산업-학계 간 연구협력 및 국제협력¹²⁾ 등을 장려하여 영국 내 투자 확대 및 혁신을 유도함.
- o R&D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비율을 2018년 1월부터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과학·기술교육 강화] 생산성 증진에 인력양성이 핵심 동력인바, 기술교육 분야 개혁과 STEM¹³⁾ 분야 투자 확대, 국가 재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노동자에게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15가지 직종별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견습제도를 병행하여 직업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개혁하고자 함.
- o 본 기술교육은 2020년에 첫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까지 해당 기술교육 시스템 개혁에 매년 5억 파운드를 투입할 예정임.
- STEM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교육에 4억 6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임.
- 국가재교육프로그램(National Retraining Scheme)을 신설하여 디지털 및 건설교육 훈련의 초기과정에 6천 4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임.

11) 6대 지원분야: 헬스케어 및 의약품,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청정·유연한 에너지(Clean and Flexible Energy), 무인차량, 미래 제조업 및 재료, 위성 및 우주기술

12) 2017년 9월 미국과 공식적으로 과학기술협정을 맺었으며, 영국의 6,500만 파운드 정도의 기여로 관련 분야의 연구협력을 강화함.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와도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13) 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을 의미함.

■ [사회기반시설 확충] 교통, 주거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친환경 인프라 시설과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영국 전역의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

- 영국정부는 교통, 주거, 디지털 등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신설된 국가 생산성투자기금을 기존 230억 파운드에서 310억 파운드로 증액함.
- 본 기금은 영국의 회계연도인 2022/23년까지 수송(49억 파운드), 주거(115억 파운드), 디지털(7억 파운드), R&D(71억 파운드) 등에 지원될 예정이며, 본 기금을 포함하여 인프라 관련 공공투자는 2022/23년까지 지난 10년 대비 두 배 증가할 전망이다.
- 전기차 충전소 설비 구축에 4억 파운드, 플러그인 자동차 보조금에 1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등 청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함.
- 전기차 충전시설 투자는 공공투자액 2억 파운드에 민간과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함.
- 도로 위와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의 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과 영국 전역에의 광통신(Full-Fibre)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 현재 영국의 광통신 네트워크는 영국 지역의 3% 정도에서만 연결되는 수준으로 70% 이상 수준인 한국,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기업환경 개선 전 세계적으로 영국은 창업 및 기업 성장에 좋은 국가로 선정되고 있으나,¹⁴⁾ 영국 내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지역간 편중성 및 영국 내 공급망(Supply chain) 미비, 투자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 민관협력 강화 및 투자기금 조성 △ 우수 기업의 사례 공유 및 협력강화 등의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본 전략에서는 '분야별 합의(Sector Deals)'를 제시함에 따라, 생산성 증진을 위한 각 산업 분야별 쟁점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의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 생명공학, △ 건설, △ 자동차, △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의가 이루어짐.
-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에서 조성되는 투자기금(25억 파운드) 신설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200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임.
- 투자기금은 민간분야와 공동 투자를 통해 확대될 전망이며,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중소기업에 많이 분포해 있는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의 모범사례 공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지역균형발전 방안] 본 전략은 영국의 지역간 격차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큰 것을 지적하면서,¹⁵⁾ 지역의 산업전략 마련과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교통개발과 지역 연결망 개선 등으로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4) 세계은행(2018)의 기업환경 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영국은 전 세계 190개 국가 중 7위, EU의 28개 회원국 중 2위(1위 덴마크)를 기록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됨. 참고: World Bank(2018).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2018". <http://www.doingbusiness.org/~media/WBG/DoingBusiness/Documents/Profiles/Regional/DB2018/EU.pdf>(검색일: 2018. 2. 27).

15) 영국의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정도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EU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Spatially rebalancing the UK economy: The need for a new policy model", p. 5의 Figure 4를 참고.

- 영국 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본 산업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 지역의 강점을 구축하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산업전략을 마련하도록 함.
-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지역 내 교통망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함.

표 1. 영국 산업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고(Idea) - R&D, 혁신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구축 - [R&D 세제혜택] R&D 세액공제 11%에서 12%로 확대 - [투자기금]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7억 2,500만 파운드의 신산업전략도전기금(New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조성
사람(People) - 기술, 교육	▷ 좋은 일자리, 경쟁력 강화 - 기술교육을 개혁하여 직종별 교육과정 운영 - [STEM 교육 강화] STEM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수학, 디지털 등의 관련 분야 교육에 4억 600만 파운드 추가 투자 - 국가재교육프로그램(National Retraining Scheme)의 신설로 디지털과 건설분야에 6,400만 파운드 추가 투입으로 재훈련 지원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 브로드밴드, 에너지, 교통	▷ 사회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 - [사회기반시설] 수송, 주거, 디지털 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회계연도 2022~23년까지 23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한 국가생산성투자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을 310억 파운드로 증액 - [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위한 4억 파운드 투자와 플러그인 자동차 보조금 1억 파운드 증액 - 2022년까지 중앙정부 차량의 25%를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 - [디지털 시설] 5G(1억 760만 파운드 투자)와 지방도시에 광통신 네트워크 구축(2억 파운드)을 포함한 1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투자를 통해 디지털 사회기반시설 구축 강화
경영환경 (Business Environment) - 특정 분야 지원, 중소기업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산업 부문별 생산성 향상] 산업 부문별 정부-산업간 부문 합의 파트너십(Sector Deal Partnership) 구축 장려 ○ 우선시행 분야: 생명과학, 건설, 인공지능, 자동차 부문 -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에서 조성되는 25억 파운드의 신규 투자기금을 포함,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200억 파운드 투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검토
지역(Places) - 지역간 격차 완화	▷ 영국 전 지역의 번영 - 지역 역량 강화 및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의 산업전략 구축 - 17억 파운드 정도의 신변혁도시기금(New Transforming Cities Fund) 마련으로 지역간 교통 개선 -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시범사업인 'Teacher Development Premium'에 4,200만 파운드 투자

자료: HM Government(2017), "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참고하여 저자가 주요 내용 정리.

- 앞서 살펴본 '5대 생산성 기초' 경제정책을 통해 영국은 ①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② 청정성장 ③ 미래형 이동수단 ④ 고령화 사회를 영국이 직면한 4가지 도전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함.
- 영국정부는 4가지 도전과제가 각 분야 내에서의 혁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큼을 밝힘.

- 인공지능(AI)의 경우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기금을 확충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경우 영국경제 규모는 2030년에 10.3%(2,320억 파운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¹⁶⁾
- 청정에너지원 및 효율적인 신소재 전환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영국이 청정성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함.
- o 특히 정책, 규제, 세금, 투자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이 영국 내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영국정부는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 유연한 규제 체계 구축 △ 무공해 차량 지원 △ 자율주행차량 증가와 교통수단의 공유 등에 따른 미래 이동수단 서비스 대응 준비 △ 효율적인 수송 체계 구축 및 미래 이동수단에 활용될 서비스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함.
- o 2021년부터 영국 내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법규의 철저한 검토로 유연한 규제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도로망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5G 시범사업 운영 등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비함.
-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과 고령층의 일자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명과학분야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망 및 시사점

■ 전술한 생산성 증진을 위한 영국정부의 산업전략은 대체로 시의적절하고 영국경제의 특징과 강점을 잘 활용한 미래 지향적 산업정책으로 평가됨.

- 브렉시트 협상 진행으로 영국의 미래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생산성 증진을 위한 미래산업전략에서의 국민적인 합의 도출과 정책대안 모색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함.
- o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2단계 브렉시트 협상에서는 EU내 4대 이동의 자유, EU와 영국 법의 조정,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영국과 EU의 미래관계를 정립하는 핵심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그동안 영국의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별로 시차를 두고 비정규적으로 제시된 반면, 2017년 11월 발표된 산업전략은 영국정부와 각 산업계의 생산성 둔화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종합 전략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청정성장 등을 우선적인 도전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통해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는 전략은 영국경제의 특징을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o 또한 생산성 증진을 위한 각 산업별 쟁점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의하는 분야별 합의 우선 부문에도 영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분야가 포함됨.

16) PWC(2017. 6), "The economic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UK economy," <https://www.pwc.co.uk/economic-services/assets/ai-uk-report-v2.pdf>(검색일: 2018. 2. 19).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국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책 부족과 구체성 결여, 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속전망으로 인한 투자부진 우려 등으로, 전술한 산업전략이 영국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상존함.

-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전략이 영국경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편중되어 있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 기반 공급구조의 취약성, 민간부문의 낮은 R&D 투자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
- 특히 Financial Times는 영국의 생산성 정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자국내 제조업 공급구조 개선에 대한 전략 부재와 제조업 생산성 증진 전략의 구체성 부족 등을 비판함.¹⁷⁾
-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민간의 R&D 투자가 유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영국의 중장기 R&D 지출비율 확대 목표 달성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 2017년 12월 15일 확정된 브렉시트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 중기예산이 만료되는 2020년 말까지 현재와 같은 EU와 영국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국경제에 대한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은 이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 유로존 경제는 2.3% 성장이 예상된 반면, 영국은 1.4%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영국의 최근 저성장세와 생산성 정체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¹⁸⁾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통상부문을 비롯한 광범위한 부문에서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한바, 향후 FTA를 포함한 한·영 경제협력 방안 모색에서 이러한 영국의 생산성 정체에 대한 고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영국의 산업전략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청정성장, ICT 및 생명공학 부문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영국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에 협력한다는 명분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실리를 동시에 추구함.
- ICT,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이동수단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도 세계적으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바, 상호 윈윈 전략으로 양국의 공동연구개발 실효성이 매우 높은 편임.
- 문재인정부 10대 국정과제의 5대 국정목표 중 두 번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 중 네 번째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이번 영국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산업전략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분야가 다수임.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국정과제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가능함.

17) Peggy Hollinger(2017. 11. 28), "Four key challenges raised by the UK's new industrial strategy.", *Financial Times*.

18) European Commission(2018),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8(Interim)," p. 30.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ip073_en.pdf(검색일: 2018. 2. 22).

- 지난 2018년 2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영 ICT 정책포럼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5G 및 인공지능 부문에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2013년 양국간 체결된 ICT 협력 양해각서(MOU)에 근거하는 동 포럼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최되어 오픈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교육 공동워크숍, 재난통신망 표준화 협력,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이번 3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서비스가 총망라된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양국간 5G 확산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핵심임.
-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양국이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전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함. **KIEP**